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2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6)
하늘에 닿을 듯한 산정의 호수

입력 : 2004. 07.02. 00:00:00

◇사라오름



지난 5월초 한라일보에는 물이 가득 들어찬 사라오름의 항공사진이 실렸다.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만수위를 기록한 사라오름은 신비감을 더했다. 이 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위치하여 출입이 금지된 오름이다. 이곳을 탐사하려면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사무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탐사팀은 6월 12일 성판악 등산로를 따라 사라오름으로 향했다.

사라오름의 표고는 해발 1324m. 성판악휴게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약 6km쯤 올라가면 사라오름이 있으나 숲속에 가려져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제주조릿대 숲을 헤쳐 화구호에 이르렀다. 오름 정상의 화구호는 제주의 오름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로 정평이 나 있다. 접시 모양의 이 화구호는 그리 깊지 않아 가뭄 때는 바닥을 드러내기도 한다. 둘레는 어림잡아 250m 정도, 화구호의 직경은 100m쯤 된다. 이 높은 곳에 이러한 산정화구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이것이 한라산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신영대 탐사위원은 화구호에 이르자 한라산의 정기를 마음껏 받아 마시라며 단전호흡법을 소개했다. 신 위원은 "사라오름은 뱀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고, 그 앞 성널오름은 살찐 개구리가 움추린 모양인데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형상"이라고 했다.

사라오름도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구호의 언저리는 식물들이 잠식해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미 육화가 돼버린 동수악, 붉은오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산정화구호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육화가 자연의 순리라면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화구호에 들어서면 한라산 정상 동릉과 가까이는 흙붉은오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화구호 남쪽에는 묘 2기가 있다. 예로부터 사라오름은 손꼽히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풍수지리에서도 제주 6대 음택혈(陰宅穴)의 으뜸으로 쳐 오는 곳이다. 후손들이 발복을 기원하며 이처럼 고지대 분화구에까지 묘자리를 쓴 연유를 헤아릴 수 있다. 묘의 옆 오솔길을 따라 화구륜에 이르러 50m를 더 가면 오른쪽으로는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 왼쪽으로 한라산 기슭 아래 수해(樹海)가 광대하게 펼쳐진다.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의 시가지, 그리고 푸른 바다를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바로 코앞에 성널오름이 맹주처럼 좌정해 있고 그 오른쪽에 논고악이 있다. 논고악은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라오름에서는 2개의 봉우리만 보인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신용만씨는 사라오름의 생채기에 대해 들려주었다. 지난 88년 오름의 남동쪽 외륜사면에 산불이 발생하여 물참나무 등 수천 그루의 나무를 태웠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고사목 몇 그루만 남아 그 때의 상황을 전해줄 뿐 땅 표면에는 제주조릿대만 뻗뻗하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 산불의 상흔은 지금도 남아 있다. 조릿대 잎사귀가 빛을 받아 반사된다.

사라악 약수는 성판악 등반로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식수다. 이 약수의 발원지가 바로 사라오름 산정호수이다. 지난 99년 제주발전연구원이 조사한 한라산 고지대 용천수현황에 따르면 강수량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이곳에서 하루 평균 50만ℓ의 물이 용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라오름은 신례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시작된 물이 사라오름 남쪽을 끼고 형성된 계곡을 따라 흐르다 진달래밭에서 시작된 또다른 지류와 보리악에서 합류해 수악계곡이 되는 것이다. 신례천과 사라오름 발원지 탐사는 지난 2001년 3월에 있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 신이 내린 명혈지

유월의 짙은 녹음을 사이로 저 장엄한 옥반형의 사라악 산정호수에 투영된 산 그림자에 마음을 놓아 보았는가. 사라악의 품에 세상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 몸을 맡기어 고요히 마음을 관조하노라면 선계(仙界)의 청학이 날개짓 하는 듯 물외(物外)의 세계를 소요하는 우리는 어느새 적송자(赤松子)가 되어 시공을 넘나들고 있음을 자득한다.

제주의 동쪽 지맥을 알려면 먼저 사라악을 느껴야 한다. 사라악은 '제1음택명혈지'이기에 앞서 동쪽 오름군의 전설적인 존재로서 힘차게 박동 하는 동쪽의 심장부에 해당된다. 생동하는 기운을 호흡기관인 성판악이 받아들여 마음껏 대자연의 기운을 호흡하며 동쪽의 곳곳으로 지맥을 일으켜 땅의 기운을 순환시킨다. 예전의 어느 지관들은 한라산의 용세가 백리가 채 안되어 인물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백두산을 태조산으로 삼으면 그 주장은 억지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제주도는 기운 생동하는 염험한 대맥이 월출산을 이어 바다 건너 이어졌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후지지(王侯之地)로 인식되었던 바 일설에 중국에서 보낸 호종단이 지맥을 끊으려 한 전설을 보더라도 제주도는 그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혈대지임을 잘 입증해 주는 풍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라악은 풍수를 논하는 지사들에게 있어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이상의 땅이기도 했다. 오기(五氣)가 고루 모이는 땅으로 예로부터 현인군자가 많이 난다는 하늘이 점찍어 놓은 곳이다. 하늘

이 감추고 땅이 감추는 오복지지(五福之地)로 덕이 없는 자는 일찌감치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사라악은 한라산의 동북 중간에 있는 허리부분으로써 형세는 기운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으로 볼 수 있으며 조안격(朝案格)인 성판악은 오히려 살찐 개구리의 형상으로 다가온다. 일찍이 장상(將相)의 땅으로 점지된 이곳은 후덕한 자가 서쪽을 의지해 바라보면 천지의 비밀을 가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제주의 동쪽 주맥은 사라봉에서 성판악으로 다시 조인납을 거쳐 우도로 지맥이 형성되는데 그 중 사라악에서 첫 번째로 큰 명혈이 맺히니 어찌 이곳을 지나치지 않은 지사가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자. 그것은 어느 개인을 위한 명혈지가 아닌 것이다. 정신을 키우는 상징적인 명혈지로서 제주의 생동하는 희망을 심어 주는 곳이다. 해발 1200 미터 이상에 4대 명혈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섬의 제주가 아니다. 한라의 영봉(靈峰)이 뿜어내는 유장한 기운이 백두에서 심원하게 이어진 보혈(寶穴)의 큰 땅임을 자부해야 한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분야)>

▲사라오름의 산정호수.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호수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